

Economy Brief

연 1조 달러 수출로 4% 성장 가시화

Economy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Check Point

6월 수출지표상에 나타난 특징: 올해 1조 달러 수출 달성 가능성, 국내 수출경기 레벨업, 비반도체 부분 수출 규모 증가, 무역수지 흑자 규모 급증

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4%대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짐

무역수지 흑자 및 한-미 금리 역전 폭 축소 가능성이 달러-원 환율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

상반기 수출액 4,967억 달러(YoY 48.4%)

6월 국내 수출이 또 다시 수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. 6월 수출은 전년동월 70.9% 증가한 1,023억 달러를 기록했다. 월간 기준으로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. 수출 1천억 달러의 일등 공신은 당연히 반도체 수출이다.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199.5% 증가한 448억 달러로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수출액이다. 특히 지난 5월 372억 달러 대비 76억 달러 증가했다.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 증가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 6월 수출지표상에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올해 수출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.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출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. 상반기 수출액이 4,967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수출규모는 5천억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. 6월과 같이 하반기 월 평균 수출액이 1천억 달러내외를 유지할 공산이 높아 올해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둘째, 국내 수출경기의 레벨업(Level up)이다.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45.4억 달러로 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지난해 일평균 수출이 평균 26.5억 달러 수준이었음 감안할 때 일평균 수출액이 45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. 국내 수출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.

셋째,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 수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.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28%를 기록했다. 수출증가율이 꾸준히 반등하고 있음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6월 수출 규모가 574.3억 달러로 이 역시 월간 기준 사상최대 규모다.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<그림>에서 보듯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수출액이 박스권을 벗어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. 비반도체 부분의 부진 현상이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다. 하반기 이란 리스크 완화에 유가 하락 및 금리인상 우려가 해소된다면 반도체 제외 부분의 수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도체와 비반도체간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마지막으로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다. 6월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271.4억 달러 증가한 361.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.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 역시 처음이다.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,383억 달러로 역대 가장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많았던 지난 17년 상반기(952억 달러) 규모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. 더욱이 하반기 유가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어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천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을 전망이다.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명목 GDP 대비 10%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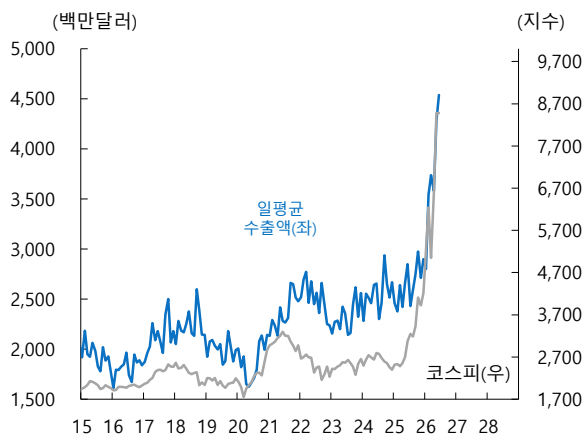
올해 4% 성장도 가시권으로...

당사는 올해 국내 6월 국내 GDP 성장률을 3.6%로 전망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4%대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. 물론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 양극화 현상이 걸림돌이지만 반도체 슈퍼 호황만을 보면 4% 성장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.

이처럼 예상보다 높아진 성장률 흐름은 미 연준의 금리정책과 상관없이 국내 기준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. 향후 성장률과 물가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올해 최소 두차례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세차례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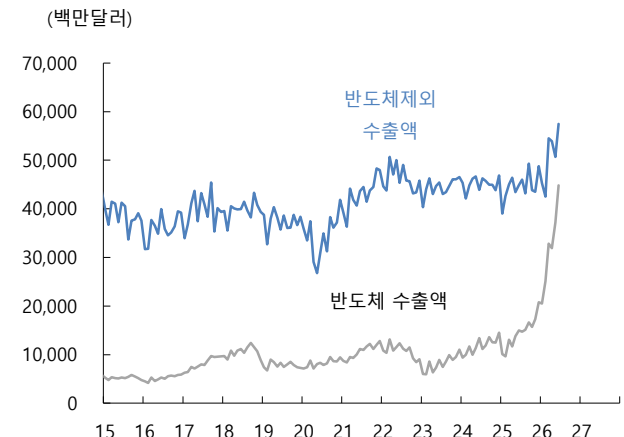
한편, 양극화라는 취약성은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국내 성장률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할 때 1,550원을 넘어선 달러-원 환율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. 미 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 및 달러 수급 불균형 등 환율 흐름을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지만 국내 경제 펀더멘탈은 달러-원 환율의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.

그림1. 일평균 수출액이 45억 달러 수준까지 증기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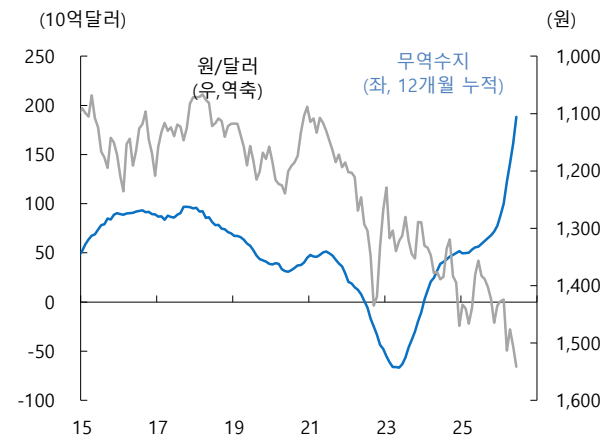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3. 6월 20대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액과 증가율: 비반도체 제품의 수출도 회복 중

구 분	IT				모빌리티		
	반도체	디스플레이	무선통신기기	컴퓨터	자동차	자동차부품	선박
수출액	448.2	15.4	15.5	54.1	67.1	17.4	28.3
증감률	+199.5	+37.0	+51.9	+308.8	+5.8	△2.4	+12.9
역대순위	1위	-	-	1위	1위	-	-
구 분	에너지·화학			소재·기계			
	석유제품	석유화학	이차전지	일반기계	전기기기	철강	비철금속
수출액	55.9	40.7	7.0	40.8	16.5	21.4	18.2
증감률	+49.8	+18.8	+17.4	+7.5	+4.1	+9.6	+45.8
역대순위	1위	-	-	-	1위	-	1위
구 분	소비재						전체
	농수산물	화장품	생활용품	섬유	가전	바이오헬스	
수출액	11.7	13.4	7.3	9.7	5.6	19.2	1,022.5
증감률	+16.8	+42.5	△4.3	+11.6	+0.5	+14.1	+70.9
역대순위	1위	1위	2위	-	-	1위	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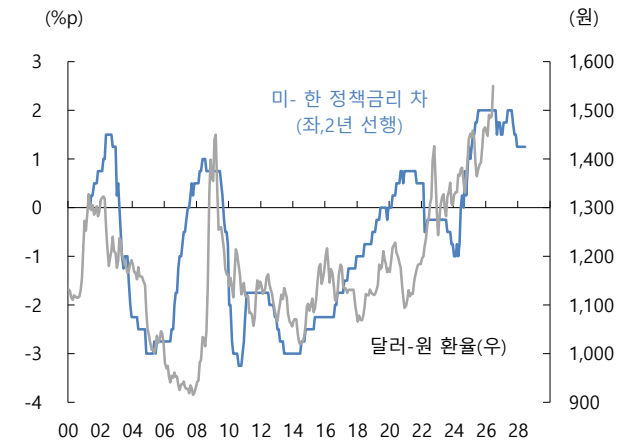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4. 무역수지 흐름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달러-원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5. 한-미간 금리 역전 폭은 연내 축소될 것으로 기대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·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·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박상현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